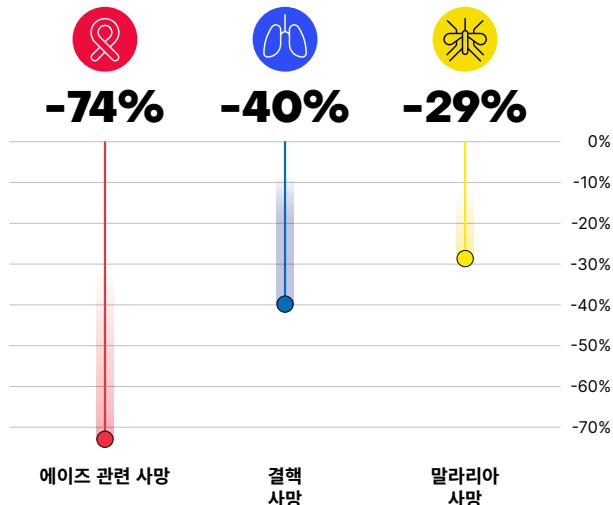


#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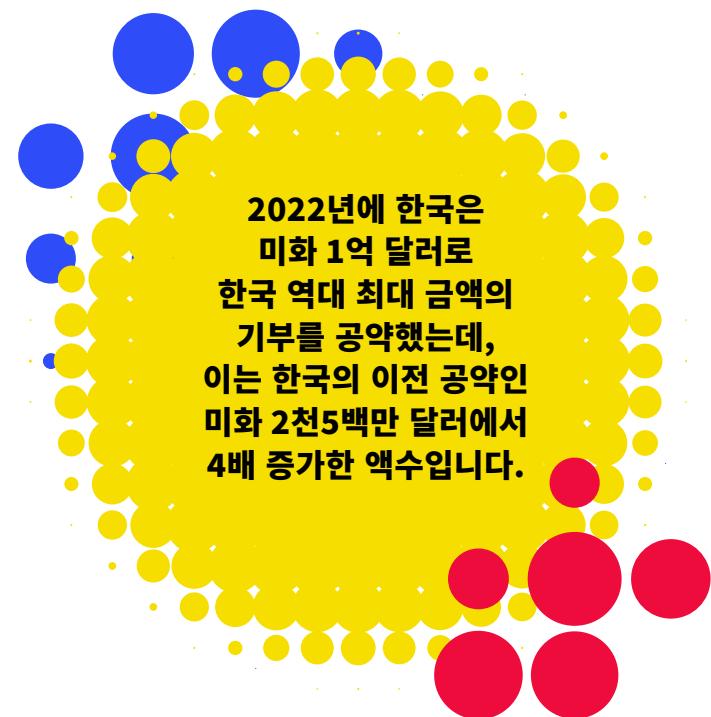
## 그리고 글로벌펀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협력하다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의 20년 이상의 파트너십은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 그리고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글로벌펀드를 통한 보건 투자로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글로벌펀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있어 전환점을 마련했고, 전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글로벌펀드 설립 이래, 우리가 투자하는 국가에서는 이들 3대 질병으로 인한 연간 사망률이 절반 이상(63%)까지 감소했습니다.



글로벌펀드가 투자한 국가들에서 200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에이즈 관련 사망률은 74% 감소했습니다. 결핵 사망률은 2002년부터 2023년 사이 40%, 말라리아 사망률은 29% 각각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은  
미화 1억 달러로  
한국 역대 최대 금액의  
기부를 공약했는데,  
이는 한국의 이전 공약인  
미화 2천5백만 달러에서  
4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 우리의 파트너십

한국은 글로벌펀드 설립 이래 지금까지 미화 1억7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글로벌펀드를 지원해 왔습니다. 세계 보건은 한국의 국제 협력 의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국은 미화 1억 달러로 한국 역대 최대 금액의 기부를 공약했는데, 이는 한국의 제6차 재원 총원 공약인 미화 2천 5백만 달러에서 4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한국은 건강을 인권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하며, 특히 전 세계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집단적 공동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글로벌펀드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그 이후로 글로벌펀드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은 글로벌펀드에 보건 의료 물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미화 약 8억 4,900만 달러 상당의 보건 의료 제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 파트너십 우선순위 분야

대한민국은 세계 보건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부응하여 보편적 의료 보장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펀드와 함께합니다.

###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글로벌펀드는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최대 규모의 다자간 기금 제공자입니다. 우리의 투자에는 조달 및 공급망 개선, 데이터 시스템 및 데이터 활용 강화, 적절한 의료 인력 구축,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 종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통합된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팬데믹 사전대비 및 대처

글로벌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인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는 다자간 기구로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각국의 팬데믹 예방, 사전대비 및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The 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펀드의 3대 질병 퇴치 투자의 3분의 1 이상이 보건 안전의 핵심 요소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한 보건의료체계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세계 보건 보안이 결코 강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HIV,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기존 질병과 싸우기 위해 구축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공식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는 세계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구축한 실험실,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진단 도구, 보건 인력 및 지역사회 체계를 새로운 팬데믹 대응의 토대로 활용했습니다.

### 혁신 기반 구축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주도되는 과학적 진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질병 예방, 치료 및 관리를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혁신을 이끌어내며, 더 빠른 진전을 이루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HIV 자가 검사는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자가 검사가 없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사람들도 검사를 받도록 격려합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펀드의 통합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1,000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가 조달되었으며, 이는 2020년에 조달된 2 백만 개의 키트보다 5배 높은 수치입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 글로벌펀드는 결핵과 코로나 19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양방향 검사

도입을 지원했습니다. 결핵과 코로나19 환자를 식별하는 것은 공공 보건 위협인 이들 질병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앞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대응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라리아 대응을 위해 글로벌펀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새로운 이중 활성 성분 살충제 처리 방충망을 도입하는 데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Unitaid와의 4년간 파트너십을 통해 동등하게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 미화 6천6백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방충망 시장 도입 프로젝트의 연장선입니다. ‘새 방충망 프로젝트’는 말라리아 퇴치에서 달성한 성과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이 질병을 공공 보건 위협으로부터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항균제 내성에 대한 대응

항균제 내성은 미생물이 항균제에 대한 내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우리 미래의 세계 보건과 경제적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약제내성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항균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일곱 번째로 주요한 원인입니다. 글로벌펀드에서는 결핵을 위한 국제적 자금조달 중 73%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약제내성 결핵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금 출처입니다.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메콩강 유역에 엄청난 차질을 주고 보건 안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약제내성 말라리아의 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펀드는 또한 HIV 약물에 대한 내성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성이 덜 발생하고 더 효과적이며 저렴한 최신 치료 요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글로벌펀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의 시민 건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펀드는 2010년 이후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미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23~2025년 동안 글로벌펀드는 북한에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 및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미화 4천2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게놈 랩 (Genome Lab) 기술로 미래 건강 위협에 대비



최신 진단 기술부터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까지, 결핵 퇴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게놈 시퀀싱)은 유기체의 유전자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최첨단 실험실 방법입니다. 결핵 퇴치에 있어, 이 염기서열 분석 기술은 중요한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결핵 전파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약제내성을 유발하는 변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핵을 신속하게 식별하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핵 퇴치에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처럼,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은 코로나19를 포함한 다른 질병 퇴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펀드는 결핵 감시를 위한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투자함으로써, 동시에 다른 질병과 미래의 보건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펀드 소개

최대 50억 달러를 조성하고 투자하여 100여 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퇴치, 보건의료체계 강화,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글로벌펀드는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